



신성장산업에 벤처 참여 확대 제7차 '벤처CEO포럼' 개최

벤처기업협회와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매일경제TV가 후원하는 '제7차 벤처CEO포럼'이 지난 2월 23일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혁신주도형 산업발전과 벤처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이 강연했다. 패널로 참석한 케이디컴 윤현범 대표와 이니시스 이금룡 대표, KIST 김지수 교수는 현업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고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혁신주도형 산업발전과 벤처정책 방향' 강연과 질의내용을 요약한 글이다.

최 근 기준미달 및 부실기업이 퇴출되면서 벤처기업 수는 '01년 1만1392개사에서 지난해 7702개사로 감소했다. 더불어 창투사와 투자액도 줄어들고 있다. 이에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침체된 벤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내 1000억원의 재정자금을 활용, 3000억원의 투자재원을 조성하고 연기금,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의 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800억원 규모의 유동화펀드를 통해 투자자금의 유동성을 넓히는 한편 M&A 촉진을 위해 재정자금과 민간자금 공동으로 벤처 M&A펀드를 만들어 일정요건을 갖춘 중개기관에 대해서는 착수금의 50%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것이다.

벤처기업 구조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합병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중 창업 지원자금(3000억원)의 신용위주 운영, 창업교육확대, 리딩 벤처그룹 육성, 국제 벤처자금 연계강화, 방송의 벤처제품 광고료 인하제도 연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벤처제품의 수요창출과 신시장 개척지원을 위해서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를 확대시행하고 벤처기업 해외지원센터 현지화, 미국 조달시장 진출 모색, 공동 물류창고 및 AS센터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

기업성장 단계별 육성지원책 마련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서 리딩 벤처기업이 대기업과 분업체제를 구축해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들에게는 기업성장단계별로 특화된 육성지원책을 마련해 집중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벤처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외국 대기업 등과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고 또한 글로벌벤처펀드 결성을 통해 국제 벤처자금을 유치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창업 활성화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올 하반기 중 민·관 공동의 업종별 창업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나올 이 계획에는 창업 관련 각종 규제 제거 및 창업절차 간소화 등을 담을 예정이다.

지난 '01년과 '02년은 벤처 거품이 제거되는 해였다. 올해부터는



주제발표 : 산업자원부 이희범 장관

패 널 : 케이디컴 윤현범 대표

이니시스 이금룡 대표

KAIST 김지수 교수

사 회 자 : 산업연구원 조영삼 연구원



벤처가 내실을 다지는 해가 되리라 예측된다. 벤처인들에게 네가지를 당부하고 싶다.

첫째, 한 우물을 파라. 둘째, R&D 투자를 늘려라. 셋째, 관리 능력을 키워라. 마지막으로 변화를 읽고 관리하라.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매일 매일 벤처하는 기분으로 나아가면 벤처기업의 미래는 분명히 밝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케이디컴 윤현범 대표 : 많은 벤처기업들이 R&D 투자시 금융제도 등의 문제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정부에서 기술평가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벤처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이 더 크게 부각되어 산업연수생 제도가 없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고해주기 바란다.

이니시스 이금룡 대표 : 현재 벤처기업은 대기업의 하청기업이라는 수직적 구조로 이루어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식정보 시대에 하청업체라는 수직적인 구시대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형의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벤처기업 육성의 핵심이라고 생각 한다.

또한, 벤처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벤처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담아내는 정책을 펴주기를 바란다.

KAIST 김지수 교수 : 미래 고부가가치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중심의 벤처산업과 신기술 시장인 코스닥시장의 육성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통합거래소에 대한 논의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벤처기업들이 이러한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마이너리그, 혹은 중속시장에 편입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있다. 기술집약적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고유한 시장이 발전적으로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